



드디어 보내는..
6월 태국팀 보고서



일정표 소개

By. Raonatti 13 thailand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마을로	2 한국어 수업 한국 문화 소개	3 350PPM 준비 한국어 수업	4 350PPM 준비 한국어 수업 한국 문화 소개	5 350PPM 교육 한국어 수업	6 산캠프으로
7 마을로	8 도이따오 스쿨 수업	9 350PPM 교육	10 한국 문화 소개	11 350PPM 교육 한국어 수업 한국 문화 소개	12 한국어 수업 한국 문화 소개	13 옆 마을 방문
14 도이따오 스쿨 수업 준비	15 도이따오 스쿨 수업	16 한국어 수업 한국화페 & 교통수단 소개	17 도이따오 행사 준비 한국어 수업	18 스승의 날 행사	19 도이따오 행사 참여 산캠프으로	20 휴식
21 마을로	22 도이따오 스쿨 수업	23 한국어 수업 한국화페 & 교통수단 소개	24 한국어 수업 반딧마블 준비	25 반딧마블 게임 진행	26 한국어 수업 한국화페 & 교통수단 소개	27 휴식
28 휴식	29 도이따오 스쿨 수업	30 휴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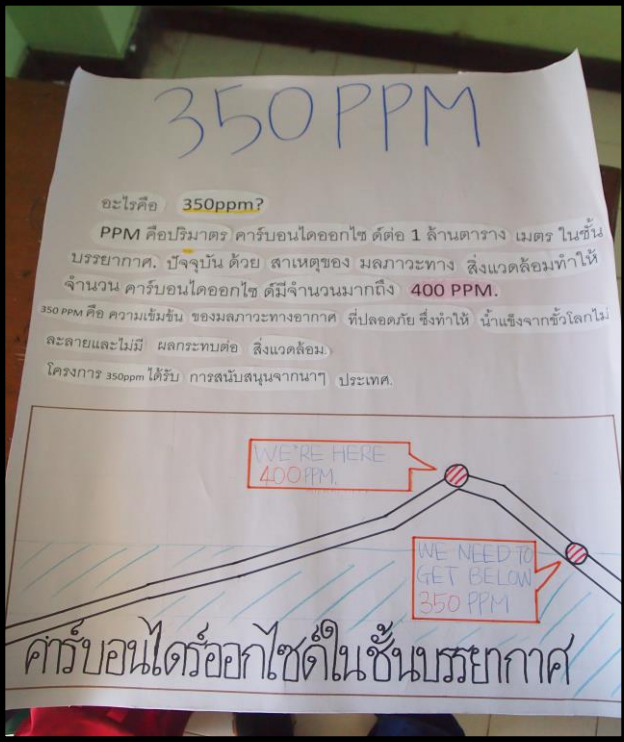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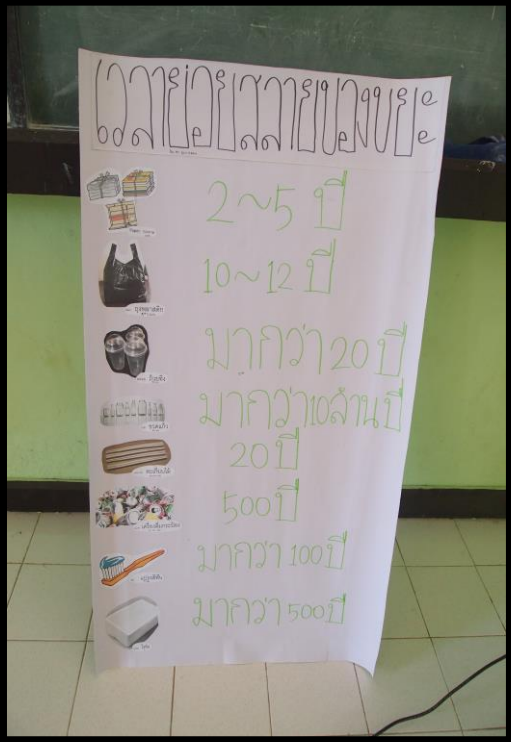
활동 소개

By. Raonatti 13 thailand



삼십이하십 PPM

저희 13기 태국팀은 이번 350PPM 캠페인의 주제를 '쓰레기'로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350PPM의 의미와 환경파리가 진행되고 있는 전지구적 사계들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쓰레기별 색을 쓰는 시간을 배우며 분리수거의 중요성도 가르쳤습니다.



목심이 과했던 우리의 350PPM

1. 원기계획은 무엇이었나?

- 저희의 원래 계획은 6월 5일을 포함한 한 주 동안 각각의 날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의 일주일'이라는 모토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기, 쓰레기, 물, 이산화탄소(2일)를 주제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캠페인은 교육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기획했습니다.

2. 왜 계획이 틀어졌고, 새로 짠 계획은 뭔가?

-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마을에 들어갔으나 우리가 기획한 캠페인과 마을상황이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규모 수정작업을 거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느낀 '쓰레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전지구적 사리를 알려주고, 쓰레기별 썩는 시간을 교육함으로써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분리수거통을 리폼하고, 직접 분리수거를 해보는 활동들을 기획했습니다.

3. 왜 활동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가?

-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이었습니다. 밀린 보고서 작성과 학교 수업 준비 등으로 바빠서 결국 교육 수업만 진행하고, 분리수거통 리폼 등과 같은 활동 수업은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50PPM 피드백

By. Raonatti 13 thailand



350PPM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육하면서, 라온아띠 2차면접이 기억났다.
나에게 만약 5천만원 이라는 금액이 있다면, 마을에 학교를 지을 것 인지, 아니면
병원을 지을 것 인지에 대한 질문. 물론 나는 당연히 거창한 이유를 몇가지 말하면서
학교를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병원을 지을지 학교를 지을지는 내가 결정하기 보다는
우선 마을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라는 답변.
그 이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번에 한번 더 저지르고 말았다.

350PPM에서.

아직 마을에 들어가지 않은 채, 우리끼리 상황을 상상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위주로 350PPM 기획안을 먼저 만들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우리는 호되게 깨졌다. 그렇게 깨지고 나서야
학교를 둘러보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난
후에야 캠페인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잊고있던 '초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태국에 오기 전부터 내심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 '350PPM 캠페인'이었다.

다른 흡수 기수들의 그리 대단하진 않아도 기발한 발상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저것보다 더 엄청난 뭔가를 만들어 내야지!"라는 포부가 컸다. 생각보다 6월 5일 환경의 날은 일찍 왔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 팀원들끼리 머리를 싸맸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 그 와중에 조그만 내 뇌 속에서 '환경의 일주일'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아직도 기특하다. 전기 없는 카페, 전기 없는 음악회 등 팀원들의 아이디어가 섞이면서 엄청난 대작이 태어난 듯 했다.

이 대작을 들고 마을에 들어간 뒤 나의 '환경의 일주일'은 아이들이 찬 축구공처럼 저 멀리 날아가버렸다. 마을은 내 생각보다 문제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환경운동 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낮시간엔 교실조차 불을 키지 않았고, 학교 안에 선풍기도 1,2대가 고작이었다. 교무실에만 있는 에어컨은 아주 가끔 사용했고, 전교생은 호주식 설거지를 했다. 그야말로 맨붕이었다. 한 가정의 환경오염보다 나 혼자 하는 환경오염이 더 클 것 같았다. 모든 것은 백지로. 그렇게. 돌아가서.. 맨붕도 오고, 어이도 없고, 기력도, 의지도.. 그렇게..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 모든 게 아쉬우고, 전기수들의 캠페인을 보며 무시했던 내가 부끄럽기도 했다. 이게 다 마을 탓일 거야.



우리끼리는 나름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캠페인.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상적이었던 걸까 아니면 환경이 그랬던 걸까. 모든 걸 집고 새로 시작!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안 되는 태국어로 아이들에게 내용설명과 정보전달을 하려고 하니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져서 결국 활동 수업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왔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또 우리가 게을러서 못했다는 점에서도 자책감이 많이 들었다.
다행인지 우리가 마을에 들어간 다음 주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텀블러 사용하기를 시작했다.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이 간식을 사먹고 버리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었다.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한 방향과는 비슷하게 되어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활동수업에 대한 아쉬움이 들었다. 분리수거와 쓰레기를 좀 더 연관을 지어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었다면 '아이들이 더 생각을 가지고 텀블러를 쓰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ห้องประชุม

반딧불이학교 생활

하루 세 시간씩 초 ~ 중급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및 한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 홈스테이 동생들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 매일 아침 함께 등교한다는 사실!

한국어 수업



한국어 수업은 기본표현과 숫자, 간단한 자기소개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표현으로는 '안녕하세요', '고마워', '미안해', '잘 가' 등을 하였고,

숫자수업은 1부터 10만까지 한국어로 어떻게 읽고 쓰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PS. 칠판 한 권에는 **오늘의 한국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간단한 일상표현을 가르쳤습니다.



한국 소개 수업

한국의 기본적인 소개로 한국의 위치, 국기, 국화, 태극라의 시차, 태극라의 거리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요도시인 서울, 부산, 제주도의 명소들과 각 도시별 특징들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화폐 & 교통수단 소개 수업

태국에 Baht가 있다면 한국은 어떤 돈을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실제로 한국 돈을 보고**
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한국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옷 소개 수업

한국 전통옷 수업에서는 한복과 액세서리
그리고 태권도복과 민속복 등의 쓰임새 및
입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입어보는 시간도
가지보았습니다.



반딧불이를 게임 진행

언어 수업과 문화 수업만 하면 아이들이 자주 지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게임형식의 수업입니다.

아이들이 잘 아는 곳 위주로 지명을 선정하였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미니게임을 섞어서 진행하였습니다.

PS. 우리의 원의도는 앞서 배운 화폐수업의 연장선으로 **복습 겸 게임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으나 아이들의 경쟁심 과열로 '게임'만 재밌게 하다 끝난 수업.





학교생활 피드백

By. Raonatti 13 thailand

6월 활동 가운데 가장 큰 활동이었던 홈스테이 & 학교활동. 정말 힘들 때도 많았고 즐거울 때도 많았다. 그 때 당시에는 수업하고, 수업 준비 하고, 초 부터 중 3까지 모든 아이들을 상대하러니 힘이 들고 지치기도 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 좀 더 아이들을 안아줄 걸, 좀 더 같이 놀 걸 하는 후회도 든다. 또, 아이들이 있어서 매일 매일 학교로 가는 발걸음을 즐거웠다. 매일 우리를 반겨주고 웃어주던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매일 '덕개우'를 불러주던 아이들이 그리워 T T



어느새 부턴가 내 얼굴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아이들이 싫어진 것도, 마을생활에 질린 것도 아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을생활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의 넘쳐흐르던 나의 '여유'가 이제 쪼그라들어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나 또한 여태까지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만 줬다. 맞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등을 돌렸다. 그렇게 삶을 살아 온 내가 라온아피가 되었다. 그리고 난 반판노아의 첫 한국인 선생님이다. 마음을 특정 아이들에게만 열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난 점점 지쳐갔다. 기분이 석 좋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라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날에는 인상을 쓰고 다녔다. 그럼 아이들이 말을 걸지 않을 것을 알기에. 모든 아이들이 순수하지 않고, 착하지도,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도 않다. 가끔 그런 날카로운 아이들까지도 품어 안았을 때 나는 상처는 그냥 찢는 것뿐이 방법이 없었다. 말로 타이릴 수 있고, 혼을 낼 수 있는 한국 아이들도 그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콘타이 애들을 상대하려니 버거웠다. 수업시간에 날 기운이 나게 해주는 것도 아이들이지만 다 때려치우고 교실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것 또한 아이들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한달 반 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반판느아 학교.

거의 한 달을 살고난 지금에 느끼는 심정은 반반! 이다.

나 같은 경우 마을에서의 생활은 거의 6시 ~ 6시30분 부터 시작된다. 반판느아 학교에 다니는 내 홈스테이 동생과 하루 일과를 같이 시작하는 셈이다. 씻고, 밥 먹고, 등교하면 기사가 조금 넘는다.

그리고 항상 이 시간이면 내가 꼭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학교 앞 유치원 방문!!

처음에는 내가 외국인이라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먼저 다가가서 놀아주고 간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는 완전 친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마다 여기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곳에서 가장 큰 행복과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이다.

학교를 비바지나와 철로 된 긴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웃으면서 달려와 품안에 착! 하고 안기는데.. 그 순간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행복의 순간이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좋은 순간들만 있는 건 아니다.

초등학교 - 중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 영어가 되는 아이들이 한명도 없어서

태국어가 약한 나는 의사소통 때문에 힘들게 많았다.

그래서 인가 누군가 태국어로 비바지나 강하게 말하면 여러가지 생각들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뭔가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건가? 생각될 때도 있었고, 몸도 안좋은데 친하다는 이유로 대리고

짚궂은 장난을 하는 친구들과 있노라면, 가끔은 정말 지칠때도 있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반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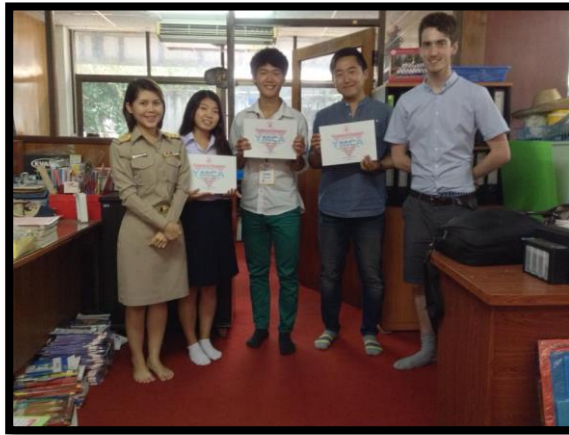
도이따오 학교 수업

산캄페 YMCA Director인 P'pare의 연으로 만나게 된 도이따오 학교.

반딧단느아와 차로 30분 거리이고 학생수도 700명 정도로

반딧단느아 스쿨보다 3배 가량 많은 아주 큰 시골학교입니다.

반딧단느아 스쿨에서와 같이 매 주 월요일 한국어 수업과 한국문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긍정편

① 예의가 바른 아이들

→ 반판느아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써주고 선생님이로 우리를 대해 주었다.

② 학교 급식 시스템

→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았다. 대학교 학생처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점!

③ 아이들의 높은 학업수준

→ 아이들이 대부분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간혹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의사 소통하기 수월했다.

④ 높은 수업참여도

→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어서 수업참여도가 높았다.

심지어 매 수업시간마다 질문을 할 정도로 열의가 높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부정편

① 선생님들의 수업태도

→ 수업에 15분씩 늦게 들어오고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면 급히 우리에게 맡기고 도망가기 일쑤였던 선생님들.

②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학교

→ 수업시간 조정, 라온아띠의 요구 등 미리미리 회의를 통해 수정, 개선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오는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우리 눈 앞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를 학교로 데리고 가는 걸 까먹을 정도로 너무 관심이 없었다.

③ 너~무 유동적인 스케줄

→ 라온아띠와의 아무런 상의 없이 당일날에 우리의 수업이 생기고 없어지는 등 스케줄이 너~무 유동적이었다.

도이파오 피드백

By. Raonatti 13 thailand



처음엔 매 주 월요일에 가서 혼자 5개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그래도 한국에 관심이 많고 우리를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수업 진행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도이따오스쿨은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 저 깊은 곳이
답답해져오고, 가끔 우리 외할머니가 하시는 행동처럼
가슴을 쿵쿵 때리게 된다. "오미 답답한 거"



외국인들을 불러서 아이들에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그 불러온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정말 아니었던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좋은점도 많았다. 일단 아이들이 어느정도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한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 등등 친구들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활동적이어서 에너지를 많이 받고 온 적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활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Nick이라는 영국친구도 이곳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99% 아쉬웠던 일상



덕's story(지원)



스승의 날

태국에서는 스승의 날 아이들은 모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절을 하는 전통이 있다. 우리도 이번에 반딧단노아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정말 유치원생부터 중3까지 모든 아이들이 입을 모아 선생님을 위한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음이 뭉클했다. 저 작고 예쁜 아이들의 입으로 노래를 부르고 불경을 외우는 것이 너무 대단했다. 다시 한 번 불교국가의 신비로움을 느껴본 시간이었다.

덕's story(지원)

덕개우의 세아들
아이.엠.보

덕개우의 세 아들

나는 마을에 아들 3명을 놔두고 왔다... T T

그 전말은 ... 학교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경계가 무색할 정도로 장난을 많이 친다.

그 중에서도 유독 나와 장난을 많이 치고 친하게 지낸 아이 3명은 내가 특별히 엄마라고 부르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메덕개우(엄마 덕개우)'라고 부르면서 장난으로 '죽친(꼬치)'를 사달라고 한다. 보고싶은 아이들...

낙's story (주현)



원래 나의 꿈은 유치원 원장님 이었다. 공부를 부지런히 하지 않아서 그 꿈은 잠시 접게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아이들을 좋아한다. 정말! 그런 나에게 있어, 학교 앞 유치원은 천국이나 다름없다. 그 작은 꼬맹이들이 "I love you ~" 라고 외치며 달려와서 품에 착! 하고 안길 때면 내 기쁨은 뽕 뜬다. 아버지가 된 기쁨?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렇다. 그래서 나는 **딸 낳은 아버지가 되고싶다.**

낙's story (주현)



내가...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크레페 가게.

500원정도 하는 저렴한 가격에 칩שמפוחל 시키는 가게

재료를 3개 고르면 작업을 시작하는 신비로운 곳. 내가 하루에 한번은 꼭 들리는 장소.

나를 살찌게 유도하는, 안 가면 불안한 이곳.. 돌아갈수 없다.. 난 이미 중독됐다.

낙's story (주현)



처음 만났을 때 부터 술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동생들과 놀러다니고, 호의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와 술잔을 제대로 못했었다.

그래서 이날 용기를 냈다. 맥주 두개를 사서 저녁시간에 보여 드렸더니 환해리 OK!

드라마 보면서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며, 많은 이야기를 했던 그 날 이후 우리집은 반주가 많아졌다..!




0000년 00월 00일 꼬손이의 일기.

제목: 개미라면

한 달 동안 묵혀뒀던 짜라면을 꺼냈다. 아닛! 내 눈앞에 펼쳐진 개미왕국!
훗! 이젠 익숙해질 때도 됐지. 과심하긴 했지만 한 친구도 다치지 않게 집으로 돌려 보냈다.
금도끼로 나무를 파고, 불을 지펴 라면을 끓여 먹었다. 허영만도 울고 갈 '개미라면'의 맛이란...





0000년 00월 00일 꼬손이의 일기.  제목: 뜨거운 밤♡

동그란 달이 뜬 반딧불이와 함께 늦은 밤. 동생의 배꼽시계가 울렸다. 도라에몽의 배와 같은 나의 간식 상자에서 짜라면 한 개를 꺼냈다. 배가 많이 고파서 있는 대로 입 속에 집어 넣었다. 그날 밤 우린 뜨거운 밤. "쓰읍쓰읍", "하얏하얏", "헉헉", "으으읍...!"

개인 소감

By. Raonatti 13 thailand

말한다. 꼬손이는. 개인소감을.



이번 6월은 팀원들보다 그리고 마을사람들보다 여자친구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용돈의 거의 대부분을 통화료로 사용하긴 했지만 다시 한 번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온아띠로서 자랑할 거리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느라 홈스테이 동생과 덜 이야기 했고, 둘이 싸운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처질만큼 라온아띠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잘못 한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난 이성을 제일 좋아하는 21살이기에 일찍 내 잘못을 알아차리진 못했다. 사랑은 한국에서! 듬뿍!

덕개우(지원) 개인소감

6월 한 달은 지금까지 태국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을 한 번에 느꼈던 달이었다.

즐거움. 행복. 화. 짜증. 힘듦. 아픔. 아쉬움...

나는 태어나서 시골에서 처음 살아본다. 그런 나에게 반딧느아는 내가 생각했던 시골보다 더 시골마을이었다. 모든 집에 다 딱딱딱 붙어있고 서로 대문도 없이 바로 붙어서 살면서 넘나드는 집들도 있었다. 반딧느아에서 그런 마을이 좋았던 점 중 하나는 앞집, 뒷집, 옆집 다 친구처럼 지내는 마을이었다는 것이다. 서로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고 이웃집 할머니와도 서슴없이 농담을 주고받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어른들과 아이들은 웃으면서 나를 반겨주었다는 거.

반딧느아에서 우리 집은 8~9시가 되면 다 씻고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난다.

한국에서 12시, 새벽 1시에 자던 내가 적응을 잘 할까 걱정했는데, 하루 종일 피곤해서인지 일찍 뻘어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잘 잤다.

홈스테이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가족에 대한 것이었다. 홈스테이 집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렸고, 우리 엄마, 아빠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고 싶으면서도, 가기 싫은 모순된 감정을 느끼곤 했다. 홈스테이 집의 할머니는 매일 나에게 '한국이 그리우니?', '엄마 안 보고 싶니?' 등을 물어보셨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이런 모순된 감정으로 항상 '조금요.'라고 대답했다.

매일 동생과 같이 등교하면서 내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났고 다시 중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다시 교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참 부러웠다.

아직도 매일 아침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안기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가 누구라고 이 아이들은 나를 이렇게 반겨줄까 싶다. 그래서 더욱 아이들에게 고맙다. 보고 싶은 아이들^^

분낙(주현) 개인소감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해서 솔직하게 바라 볼 수 있었던 한 달 이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알게 된 것 같다. 나란 사람의 모습을.

그 중 가장 큰 이야기는 나는 '착한 척 하고 싶은 환자 였던건 아닐까?' 에 대한 이야기 이다. 이때까지 나는 정말 착한 척만 하고 있었다. 대화를 할 때면 내가 불편하고 할 말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직구"를 던지지 못하고 애꿎은 "변화구"만 던지면서 그저 상대방이 먼저 이해해주길 바랬던 것 같다. 한국에 있을 때면 이렇듯 변화구만 잘 던져도 모든일이 술술 잘 풀렸다. 왜냐면, 그 사람들과 24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굳이 듣기 싫은 말은 안하면 그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곳 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대화라는 매개체로 제대로 된 소통을 하려면 직구도 던질 줄 알아야 했다. 하지만 그럴 때 마다 나는 한발 빠져서 망설였고, 그런 망설임이 쌓이고 쌓여 지금까지 온 것 같다. 모든 공을 직구로 던져서는 또 안될 것 같긴 하지만, **이건 앞으로 더 부딪치면서 배우야 할 것 같다!! 힘!**